

나는 이번에 두번째로 조국을 방문하였다. TV와 신문에서 많이 보아왔지만 실제 와보니 평양은 5년전과는 너무도 달라보게 변모되었다.

홀륭하게 일떠선 참전거리의 고층상림집들, 시내 여러 곳에 있는 병원들과 문화생활거점들...

그중에서도 수도의 한복판, 제일 좋은 명당자리에 솟아난 한쪽의 그림과 같이 아름다운 인민국장의 전경이 나의 시선을 더욱 끌어당겼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모신 만수대언덕아래에 일떠선 인민국장은 설계와 건축형식이 독특했고 미학상으로도 훌륭하였다. 들어가보니 내부구조와 장식들도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어 감탄사가 부족할뿐이었다.

꽃잎형상의 지붕, 주름잡힌 손풍금의 풍랑인듯 한 유리벽체, 현관홀의 별무리장식 등 우아함과 웅장함, 정교함이 잘 조화되어 현대미의 극치를 이룬 국장에는 마이크를 전혀 쓰지 않는 원형생음극장과 지하극장, 최신식 무대설비들이 있어 예술창조와 공연활동에 필요한 조건들은 다 갖추어져 있었다. 관람자들이 각인각도에서 배우들의 공연을 볼 수 있도록 관람석이 무대의 앞

인민사랑이 어린 극장

과 뒤, 옆면에 블록형식으로 있는것도 새로웠다.

정말 인민국장은 안팎으로 멋쟁이였으며 모든것이 최고이고 만점이였다. 국장은 건축미학적으로나 조형예술적으로만이 아니라 그 인민적성격으로 하여 나의 심금을 더욱 울려주었다.

안내원의 말에 의하면 아버지수령님 탄생 100돐을 맞으며 첫 개관공연이 진행된 후 지금까지 국장에서 공훈국가합창단과 국립교향악단 등 수많은 예술단체들의 공연이 진행되었다고 한다.

그처럼 훌륭한 문화예술의 전당이지만 결코 전문예술인들만 무대에 나선것은 아니였다. 태양절경극인민예술축전참가자들도 이 무대에 오르고 5.1절경축음

악회의 제대군인로동자부부도 무대의 주인공이 되었으며 학생소년들도 이 무대에서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펼쳐보이고있다. 말그대로 인민모두가 주인이 된 국장인 것이다.

인민국장에는 특별한 좌석이 없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일반석에 앉으시여 평범한 근로자, 군인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셨다고 한다.

세상을 둘러보면 오랜 력사와 현대미를 자랑하는 국장들이 적지 않지만 이것들은 다 인민과 거리가 멀었다. 특권층의 소유로만 되어왔던 건축물들이 인민의 이름으로 불리우며 인민의 참된 문명과 행복의 상징으로 되고있는 경이적인 현실은 오직

철세의 위인들을 높이 모신

공화국에서만 펼쳐지고있다.

인민대학습당, 인민문화극전, 인민극장 등 모든것을 다 인민의 이름과 더불어 빛나도록 해주신 아버지수령님, 수령님의 인민중시, 인민사랑의 세계를 그대로 이으시고 인민극장건설을 발기하신분은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뜻밖에 잃고 산천초목도 몸부림치던 그 나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인민극장건설을 중단없이 최상의 수준에서 다그치도록 이끌어 주시여 오늘과 같은 웅장화려한 자태를 드러내놓을수 있었다고 한다.

어느 한 철학가는 건축술은 《인간지성의 축도》라고 했다.

인민극장은 《인간지성의 축도》이기에 앞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고결한 총정의 산물이고 그분의 은정에 의해 솟아난 인민사랑의 극장이다.

인민극장, 너무도 소박한 이름이다.

세계에는 이름난 예술가들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극장들이 적지 않다. 그런데 공화국에서는 가장 좋은 명당자리에 홀륭하게 일떠선 극장에 평범한 인민의 이름을 달았다.

나는 극장의 명칭은 험란하지 않아도 그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인민극장에는 그 무엇으로서도 다 해설할수 없는 웅대한 뜻과 심원한 세계가 깃들여있다.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은 인민대중과 결부될 때만이 빛을 뿌릴수 있고 예술도 인민이 향유할 때에 참된 예술이 된다는 철세위인들의 위대한 인민관, 인민사랑의 세계가 어려있어 인민극장은 력사에 기록된 동서방의 그 어느 건축물과도 대비할수 없이 위대하고 숭엄한것으로 되고있는것이다.

정녕 나는 인민극장에서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노래를 들었다. 트라인민유원지, 인민야외빙상장, 문수물놀이장, 미림송마구락부, 마식령스키장 등 인민사랑의 창조물들에서 행복에 넘친 인민들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나는 확신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인민극장에서는 인민들의 행복한 노래소리가 끊없이 울리고 원수님의 인민사랑속에 인민의 모든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리라는것을.

재중동모 리미화

조선에서만 볼수 있는 놀라운 현실의 국민들의 방문소감

오늘날 세계도처에서 빈부의 격차가 극도에 달하고 사회적불평등이 심화되어 사람들이 아우성치고있지만 인민의 기쁨과 행복이 날로 더욱 꽃피어나는 공화국의 현실은 보는 사람마다 감탄을 자아내게 하고있다.

얼마전 평양을 찾아 도처에 일떠선 수많은 인민사랑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을 돌아본 **중국국민 재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은 매일과 같이 참신한 모습을 나타내고있다. 하루밤 자고나면 새로운것이 일떠서고 또 하루밤 자고나면 새것이 일떠선다. 불과 2년동안에 인민의 행복을 위한 건축물들과 시설물들이 정말 많이 일떠섰다.》며 깊은 감동을 표시하였다.

이탈리아국민 그리스디안 베네테는 《조선을 방문할

때마다 커다란 발전이 이룩된것을 목격하곤 한다. 인민을 위한 병원들과 극장들을 비롯한 건축물들이 새로 많이 일떠섰다. 조선에서는 이러한 대중적인 인민봉사기자들이 훌륭히 일떠서고있지만 이탈리아는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서 부러움을 금치 못하였다.

로씨아국민 엘레나 바비치는 《조선인민은 철학자들이 강요한 제재속에서 이 모든것을 일떠세웠다. 조선은 어렵고 복잡하며 지어는 건터여민기조차 힘든 조건에서도 인민을 위한 기적을 창조하였다.》고 말하였다.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로씨아 모스크바의회의 의원 대표단 단장 올라지미르 스바토셴코**는 《조선의 병원들에서 현대적인 의료설비를 갖추고 무상으로 치료해주고있

는데 많은 투자와 자금이 요구되는 이 모든것을 국가가 부담하고있는것은 사람을 기본으로 보는 조선에서만 볼수 있는 놀라운 현실이다. 조선의 현실은 우리를 크게 고무해주고있다.》고 말하였다.

이렇듯 조선의 눈부신 현실을 직접 목격한 외국의 벗들은 한결같이 조선의 사회주의제도가말로 인민이 주인이 되고 인민의 리익을 위해 복무하는 력사에 있어 본적이 없는 인민복지의 제도로라는데 크게 공감하고있다. 그러면서 인류가 바라고 인류가 념원해온 기적중의 기적은 바로 이런 인민중심의 사회에서만 꽃피날수 있는것이라고, 누구나 조선에 와보아야 한다고 말하고있다.

본사기자

누구나 무료로 공부하는 복벽사회

복벽사회는 돈이 없어 병원에 못간다든지 학교에 갈수 없다는 말자체가 없는 사회이다.

락아스, 유치원, 소학교, 초중, 고중, 대학교육에 전혀 돈이 들지 않는다.

교육제도 역시 세계 제1등 사회라고 말할수 있다.

유치원시기부터 수제교육도 실시하기때문에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대학, 박사원에 이르기까지 수재들이 많이 나온다. 과학수재들, 문예수재들, 예술수재들을 비롯한 다양한 수재들이 곳곳에서 나온다. 그래서 복벽사회를 잘 아는

이다.

그리고 남녀로스 누구든지 예능에 관심이 있고 재능이 있으면 얼마든지 개발할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있기때문에 복벽동포들은 누구든지 노래를 잘하고 적어도 하나의 악기정도는 다룰줄 안다고 자랑하고있다.

유치원시기부터 수제교육도 실시하기때문에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대학, 박사원에 이르기까지 수재들이 많이 나온다. 과학수재들, 문예수재들, 예술수재들을 비롯한 다양한 수재들이 곳곳에서 나온다. 그래서 복벽사회를 잘 아는

사람들은 교육천국이라고도 한다.

복벽사회의 주체적문화수준도 대단히 높다.

복벽동포들은 나라규율이니 질서를 잘 지킨다. 준법정신이 아주 강하다.

그리고 사회전체가 깨끗하다. 쓰레기가 거의 없다. 신문이나 잡지 등이 거리에 널려다니는 경우를 전혀 볼수가 없다.

이른아침 어디를 가나 동네 남녀로소가 자기 구역을 깨끗이 청소하는 모습을 볼수가 있다.

《민족통신》대표로 길남

평범한 가정들에 꽃피는 경사

평양시 만경대구역 갈림길1동 39인민반과 41인민반 주민들은 아바트한 현관에 산다. 이 두 인민반에 경사가 있다.

일마전 아바트에서 한 두 명도 아니고 10여명이나 되는 자녀들이 대학, 전문학교에 입학한것이다. 김일성종합대학과 함덕수령양경공업대학, 평양건축종합대학, 평양경공업전문학교...

그들중에는 군사복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청년들도 여러명되고 한동네에서 함께 자라며 공부한 고급중학교 졸업생들도 있다.

자식들이 입학시험을 치러 갈 때까지 한해도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가슴을 조였던 부모도 없지 않았다. 그런데 대학, 전문학교시험을 친 10여명이 입학통지서를 받고 현관문으로 들어섰다.

《어쩌면 우리 현관에 이런 복이 넘볼체 꼭 떨어졌을가.》

《이게 어디 우연이었소. 제도가 좋아서 차레전 복이지.》

《길쑤아. 기쁨아. 대학취장을 단 녀희들을 보고 사람들이 부모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으면 어깨를 쭉 펴고 대답하더라. 우리 아버지

로동자라고 말이다.》14층 3호집의 할머니도 이렇게 말하며 이야기관에 끼여들었다.

이번에 대학과 전문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아버지들은 거의다 동구주재건설사업소를 비롯한 건설부문의 로동자들이다. 나라가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 태어난 세대들이건만 언제 한번 그들의 얼굴에 그들이 비긴적이 없었다.

평범한 로동자의 자녀들도 배움의 나래를 마음껏 펼칠수 있게 해준 국가의 배려가 너무 고마워 부모들은 자식들을 나라의 기둥감으로 자라도록 떠밀어주었고 자식들은 높은 학과실력을 갖추기 위해 애써 노력하였다.

이런 과정에 오늘과 같은 경사가 난것이다.

《인민반장, 우리 동네사람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속보를 꼭직하게 써서 앞마당에 내거는게 어떻소?》

현관의 속보원혁할을 하고 있는 최형근로인의 이 말에 인민반장은 물론 모여있던 사람들도모두 쌍수를 들어 찬성하였다. 좋은 일이 생기면 서로 축하해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마음을 합쳐가며 락천적으로 생활해온 이곳 주민들이다.

3층 3호집과 7층 4호집 자식들을 비롯해서 여러명이 제대되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꽃목걸이를 만든다. 꽃보라를 만든다 하며 들썩이더니 오늘은 또 이렇게 대학생, 전문학교학생이 많이 나온것을 제 집일처럼 기뻐하며 흥성인다.

잠시후 현관앞마당에 설치된 큼직한 속보판앞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현관의 주민들은 평범한 가정의 자식들을 대학생, 전문학교학생으로 내세워준 나라의 은덕에 눈시울적시며 입학한 동무들을 열렬히 축하함니

이라는 글발밑에 입학생들의 이름과 중, 초, 대학, 전문학교명칭을 쭉 내리쓴 속보판앞을 오래도록 떠날줄 몰랐다.

평범한 가정들에 꽃핀 경사.

정녕 그것은 근로하는 인민의 아들딸들을 품에 안아 나라의 어엿한 역군으로 키워 내세워주는 고마운 제도에서만 꽃피날수 있는 기쁨이며 자랑인것이다.

본사기자 홍범식



전망성있는 민요가수후비육성사업을 파고들고있다. —김원균평명 평양음악대학에서—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를 내오기로 결정

원산—금강산지구에는 세계일류급의 마식령스키장과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가 훌륭히 일떠서고 원산지구, 울림폭포지구, 석왕사지구, 통천지구가 인민의 문화휴양지로 특색있게 꾸러지고있으며 천하절승 금강산과 명승지들에 대한 조선민족과 세계인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있다.

조선에서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변모되는 원산지구와 동해명승지들에 대한 국제적인 관광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강원도 원산—금강산지구에 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를 내오기로 결정하였다.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에는 원산지구, 마식령스키장지구, 울림폭포지구, 석왕사지구, 통천지구, 금강산지구 포함된다.

원산지구에는 원산시 일부지역과 안변군 일부지역이, 마식령스키장지구에는 원산시 일부지역과 법동군 일부지역이, 울림폭포지구에는 문천시 일부지역과 천내군 일부지역이, 석왕사지구에는 고산군 일부지역이, 통천지구에는 통천군 일부지역이, 금강산지구에는 금강

산 국제관광특구와 고성군 일부지역, 금강군 일부지역이 속한다.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에는 해당 지역과 대상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경제개발구법, 외국투자관련법규들이 적용된다.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개발과 관광이 추진되는데 따라 새로운 관광대상들을 더 늘이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11일에 발표되었다.

본사기자

머칠전 취재길을 가던 나의 귀전에 《경상유치원차가 온다.》 하는 기쁨에 넘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아이들이 오는구만.》 하며 자그마한 소형버스앞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속에는 할머니도 있고 갖서를 넘겼을가 한 젊은 녀인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었다.

호기심에 끌려 그곳으로 다가가니 5~6살정도의 귀염성스러운 아이들이 방글방글 웃으며 차에서 내리었다.

《할머니, 유치원에 갔다 왔습니다.》

《엄마, 피아노치기가 정말 재미미요.》

《할아버지, 나 청을 잘한다고 선생님이 칭찬했다.》

저저마다 떠들어대는 활기가 넘친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나는 저도 모르게 그들의 세계에 빠져들었다.

《정말 좋겠어요. 아이들을 이렇게 집앞에서 맞이하니 말이예요.》

《더 말해 뵈하겠소. 우리 아이들이 아침에는 집앞에서 버스를 타고 유치원까지 가

수필 통학배스를 타고

고 또 저녁에는 유치원에서 집앞에까지 태워다주니 호강을 하지요.》

《복신하고 멋있는 의자에 앉아 편안하게 통학배스를 타고 다니니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통학배스자랑에 여념이 없는 그들을 바라보노라니 절로 가슴이 뭉클해졌다.

경상유치원 통학배스!

그것은 2009년 12월 19일 경상유치원을 찾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먼곳에서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을 위해 몸소 마련하여주신 것이었다.

아이들에게 맞게 오르내리기 쉽고 폭신한 의자들이 놓여진 소형버스들이었다. 그 소형버스들이 평양 시내 곳곳을 누비며 경상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들의 집앞에까지 가서 그들을 태우고 유치원으로 온다. 유치원에서 집으

로 돌아갈 때에는 교양원들이 직접 차를 타고 어린이들을 부모들에게 데려다준다.

5~6살이라면 장난이 세찬 연령기여서 혹시 길거리에서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잔근심을 놓지 못하는것이 부모들의 심정이다.

하지만 경상유치원에 아이들을 맡긴 부모들은 그런 걱정을 모른다. 아이들

이 통학배스를 타고 유치원에서 집으로 오가다나니 부모들은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자기 일에 전심하고있는 것이다.

재능있는 음악인재들을 키워내는 조기음악인재양성지인 경상유치원에는 평양 시내 여러곳에서 온 재능있는 어린이들이 많다.

사실 어린이들이 경상유치



원에서 재능의 나래를 활짝 꽃피우는것만도 고마운 일이었다. 하지만 아이들의 재능의 싹을 그 누구보다도 귀중히 여기시며 자그마한 불편도 없게 따듯이 보살펴주시는 절세위인들의 해빛같은 사랑의 손길이 아이들의 통학길에도 속속들이 깃들고있는것이다.

하기에 경상유치원을 찾는 외국의 손님들은 《어린이보호를 허를 가로물고 해야 하는 자본주의나라에서 유치원 어린이들의 집앞에까지 통학배스가 가는것은 생각조차 할수 없다. 오직 어린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떠받드는 조선에서만 펼쳐질수 있는 희한한 현실이다. 왕차를 타고 다니는 조선의 어린이들이 부럽다.》고 하면서 경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사랑의 왕차를 타고 유치원으로 오가는 복받은 아이들의 행복넘친 모습에서 나는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뜨겁게 새겨안으며 결음을 다그쳤다.

고영숙

자기 기술로 제품의 질을 높여간다

* 평양진재공장을 찾아서 *

우리는 얼마전 종합진재생산기지인 평양진재공장을 찾았다.

곳곳에 심은 과일나무들과 딸기나무들, 아담하게 지은 사무구사와 반원형지붕의 생산직장들, 쭉 뻗어간 잘 포장된 구내길은 마치 한쪽의 그림과 같았다.

《우리 공장은 여러가지 진제품들을 생산하는 종합진재기지로서 날로 높아지는 건설의 현대화수준에 맞게 각종 진제품들을 생산보장하여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맞이한 정경섭부기사는 이렇게 말하며 제품전시장으로 우리를 안내하였다.

모든 제품들을 한눈에 볼수 있게 꾸러진 전시장에 들어서니 공장에서 생산한 각종 타일과 위생자기, 수직창, 인조대리석, 외장재, 방수관을 비롯한 여러가지 품종의 진제품들이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자체의 힘으로 각종 진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호모한 광경이었다.

특히 우리의 눈길을 끈것은 공장에서 제작한 위생자기모형으로 만든 여러가지 형태의 위생자기였다.

부기사장은 이제에는 우리도

수입에 의존하던 위생자기모형을 자체의 힘으로 제작하여 각종 위생자기를 생산하고있다고 자랑하였다.

알고보니 공장에서는 3D(3차원측정)와 CAD(컴퓨터지원설계), CAM(컴퓨터지원제조)기술에 의한 위생자기모형의 국산화에 성공하였던것이다.

특히 전국과학기술축전중서를 받은 《3차원측정과 CAD/CAM기술에 의한 위생자기모형국산화》는 이번엔 진행된 제29차 중앙과학기술축전에서 높이 평가되었으며 현재 이 기술을 도입하여 11가지의 위생자기모형을 생산하고있었다.

우리는 그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싶어 모형설계실에 들렀다. 설계실에서는 여러명의 기술자들이 3D기구를 도입한 레이자3차원형태측정

기로 새로운 위생자기를 측정하고있었다.

이곳 조형옥실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새 기술을 도입하기 전에는 세면기, 소변기, 좌식변기를 비롯한 위생자기모형을 수입하였습니다. 보통수천~수만US\$의 자금이 드는 모형은 우리 기술자들의 망심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원래 2008년부터 CAD, CAM기술도입을 시도했지만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였고 그때 당시 첨단기술을 배워주는 나라도, 기업도 없었다고 하면서 자체의 힘으로 모형을 제작할 결심을 가지고 달라붙었다고 하였다.

하여 우리 기술자들이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국가과학원과의 긴밀한 협력덕에 2010년



부터 다시 시도한 결과 3년만에 3차원측정까지 포함한 첨단기술을 개발하여 위생자기모형을 제작하였다고 설명하는 그의 말에서 우리는 마감진재의 국산화를 실현하여 나라에 하나라도 더 보탬을 주려는 애국의 마음을 느낄수 있었다.

이어 그는 위생자기형타 작업장으로 우리를 이끌었다. 거기서는 한명의 로동자가 현대적인 CNC가공반으로 위생자기모형을 제작하고있었다.

《보다싶이 짧은 시간내에 각이한 위생자기모형을 제작할수 있는 기계입니다. 이것의 도입으로 보는 경제효과와는 대단히 큼니다.》첨단기술을 도입하여 실리

가 나게 일한다는 부기사의 말이였다. 적은 인가를 들어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

